

울산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후평가

김 선 중*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

전 창 미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수료)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이웃간의 교류와 만남이 단절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가 많은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울산시 북구청은 '주민 화합'과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2004년 1년 동안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행복한 공동주택 가꾸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시 북구청에서 교육한 관내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고찰한 후, 프로그램을 실시한 북구의 아파트 단지 2 곳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남구의 아파트 단지 2곳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요구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북 구청에서 개발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내용분석과 이를 기초로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하여 수정·보완한 후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에 대한 항목은 3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24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입을 잘못하거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00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부인의 학력, 남편의 직업, 월평균수입, 가족생활주기, 분양면적, 거주기간, 가장 의 직장위치를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택특성은 교육시행아파트의 거주자와 일반아파트의 주민집단과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5개 실천덕목에 대한 만족 도는 교육시행아파트 주민 집단과 일반아파트 주민 집단의 경우가 달리 나타났다. 공동생활관리프로그램, 기초생활관리프로그램, 주민화합지원프로그램, 여가편익증진 프로그램은 시행아파트주민의 만족도가 높았고, 기초생활예절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반아파트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다. 두 집단 모두 이론적 평균치 2.0 이상의 만족도 를 나타낸 주요 항목은 기초생활예절프로그램이었고 공동생활관리와 기초 생활안전 프로그램 역시 시행아파트 집단에서는 2.0 이상의 만족을 보였다. 두 집단 간 만족 도 차이가 큰 항목은 여가편익증진프로그램과 주민화합지원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아파트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운영에 교육 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향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공동생활 관리프로그램, 기초생활안전프로그램, 기초생활예절프로그램, 여가편익증진프로그램, 주민화합지원프로그램, 친환경적 생활운동프로그램 등 6개의 실천덕목에 대해 교육 수행아파트 주민집단과 일반아파트 주민집단 모두 이론적 평균치 2.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교육수행 아파트 주민의 경우 6개 실천덕목 모두 일반 아파트 주민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